

##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영향요인

김요나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Factors on Nursing Work Performance by Clinical Nurses

Yo-Na Kim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이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임상간호사 140명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51점, 임상 의사결정은 3.23점, 간호업무수행은 3.77점이었으며, 간호업무수행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 현직위, 임상 총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객관성, 지적열정 및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계성, 임상 총 경력, 신중함,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로 총 설명력은 57.3%이었다. 본 결과를 토대로 간호업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linical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decision-making on nursing work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0 clinical nurses,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3.0. The subjec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51; clinical decision making was 3.23; nursing work performance was 3.77. The nursing work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work unit, current position and total clinical career. The systematicity, intellectual fairness, healthy skepticism, objectivity,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prudence, self-confidence, canvassing of objectives and values,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search for inform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work performance.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work performance were systematic, and total clinical career, prudence, canvassing of objectives and values were 57.3%. In order to improve nursing work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pecific and subdivided programs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decision-making.

**Keywords** : Clinical,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Nursing Work Performance

본 논문은 2020년도 춘해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Yo-Na Kim(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email: kyn12@ch.ac.kr

Received September 16, 2021

Revised October 13,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 질병이 만성화되어 건강관리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 되었고, 건강관리체계의 구조적 변화, 의료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간호사의 역할확대와 더불어 전문 간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간호사는 병원조직 전체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 조직 중 하나로 병원 경쟁력의 핵심적인 중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 되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은 의료기관의 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2].

간호업무수행이란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제반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수행으로 환자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간호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질 관리의 주요지표로 단순한 기술을 제공하는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근거기반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3].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과 습관을 말하며[3],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의 판단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4].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지고 임상에 임할 때 간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간호현장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자율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임상 의사결정 능력 및 간호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가져와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제공을 가능하게 한다[5].

임상 의사결정은 임상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질 높은 간호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이며, 복잡하고 역동적인 간호 상황에서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의사결정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1,5,7]. 일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은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었다[8].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습관

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9]. 이렇듯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 의사결정의 관련성은 연구되어져 있으나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과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 영역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 의사결정의 상관성 및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을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 및 간호업무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상관관계 및 간호업무수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역의 위치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program 3.1.9.7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검정에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최소 표본수는 123명,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연구대상자 148명을 산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부적절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14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비판적 사고성향 27문항, 임상 의사결정 40문항, 간호업무수행 32문항, 인구학적 특성 9문항으로 총 10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27문항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 7개 하위영역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전전한 회의성', '객관성'으로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2 임상 의사결정

임상 의사결정은 40문항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 하위영역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가치목표에 대한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 = .77$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61$ 이었다.

### 2.3.3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수행은 임상간호사 평정도구 32문항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수집기간

본 연구는 U광역시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 104438-A-2020-021)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자료 수집하였다.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대면 접촉을 통하여 부산과, 울산 및 경남소재의 200명 이상 종합병원을 임의 추출하였다. 간호부서장의 동의를 구한 후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간호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의 익명성, 동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간호사들만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설문 도중 자율적으로 철회 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최대 10분 미만이었으며, 설문을 완성한 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코딩하여 정리 및 자료 분석하였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연구실의 캐비닛에 잠금 장치하여 보관한 후 3년이 지나면 설문지는 폐기 할 예정이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차이는 t-test 및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3.51 \pm 0.41$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Nursing Work Performance, of Subjects (N=140)

Variables	M±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1±0.41
Systematicity	3.93±0.56
Intellectual fairness	3.67±0.44
Healthy skepticism	3.27±0.56
Objectivity	3.31±0.44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39±0.58
Prudence	3.57±0.60
Self confidence	3.53±0.54
Clinical decision making	3.23±0.20
Search for alternatives or option	2.96±0.24
Canvassing of objectives and values	3.14±0.33
Evaluation &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3.40±0.38
Search for information and unbiased assimilation of new information	3.44±0.31
Nursing work performance	3.77±0.47

(척도범위: 1-5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체계성(3.93±0.56), 지적공정성(3.67±0.44), 신중성(3.57±0.60), 자신감(3.53±0.54), 지적열정 및 호기심(3.39±0.58), 객관성(3.31±0.44), 건전한 회의성(3.27±0.56)순으로 나타났다. 임상 의사결정 정도는 평균 3.23±0.20(척도범위: 1-5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3.44±0.31),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3.40±0.38),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3.14±0.33), 대안과 선택에 조사(2.96±0.24)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평균 3.77±0.47(척도범위: 1-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F=7.92,  $p < .001$ ), 최종학력(F=3.43,  $p = .035$ ), 직위(F=9.04,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으로 25세 이하, 26-30세, 31-40세 보다 41세 이상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4년제 졸업보다 석사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일반간호사보다 주임간호사, 수간호사 이상에서 비판적 사고

Table 2.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Nursing Work Perform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Categories		CTD <sup>a</sup> M±SD	t/F(p) Scheffé	CDM <sup>a</sup> M±SD	t/F(p) Scheffé	WNP <sup>a</sup> M±SD	t/F(p) Scheffé
Age (years)	≤25 <sup>a</sup>	94.27±10.52	7.92 ( $<.001$ )	129.49±7.72	3.05 (.031)	117.16±15.50	9.29 ( $<.001$ )
	26-30 <sup>b</sup>	91.00±9.12		127.12±8.15		116.61±11.20	
	31-40 <sup>c</sup>	95.24±12.99	a,b,c<d	130.27±7.83	b<d	121.97±17.05	a,b,c<d
	41≤ <sup>d</sup>	104.10±7.57		133.14±7.82		134.52±10.30	
Marital status	yes	93.92±10.17	-1.19 (.237)	128.75±7.93	-1.13 (.262)	117.94±13.62	-2.83 (.005)
	no	96.24±12.51		130.35±8.34		125.27±16.41	
Religion	yes	96.85±10.29	1.52 (.132)	129.98±7.50	0.60 (.551)	122.26±14.13	0.85 (.394)
	no	93.84±11.37		129.11±8.38		119.95±15.48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sup>a</sup>	96.32±11.20	3.43 (.035)	128.42±7.28	1.34 (.256)	122.72±14.30	1.38 (.256)
	University <sup>b</sup>	92.96±10.46		129.51±8.45		118.85±15.55	
	Master≤ <sup>c</sup>	102.00±11.83		b<c		133.38±8.80	
Work unit	Ward <sup>a</sup>	94.27±10.68	2.29 (.081)	130.00±8.43	1.34 (.263)	120.18±13.61	3.95 (.010)
	ICU, ER <sup>b</sup>	90.57±9.19		126.14±7.16		112.52±13.41	
	OPD <sup>c</sup>	98.00±11.34		129.75±8.10		124.38±11.53	
	Others <sup>d</sup>	97.94±12.28		129.94±7.68		126.09±17.69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sup>a</sup>	92.90±10.88	9.04 ( $<.001$ )	128.38±7.81	4.80 (.010)	117.73±14.51	13.20 ( $<.001$ )
	Charge nurse <sup>b</sup>	103.20±9.31		134.27±8.94		130.67±10.46	
	Head nurse≤ <sup>c</sup>	101.41±7.35		132.67±7.35		135.50±11.21	
Total clinical-career (years)	1≤ <sup>a</sup>	94.48±11.20	1.62 (.174)	130.96±8.59	1.34 (.259)	116.41±16.98	4.19 (.003)
	2-5 <sup>b</sup>	93.45±9.66		128.24±8.20		117.76±11.14	
	6-10 <sup>c</sup>	93.12±10.19		128.33±7.84		119.57±12.13	
	11-20 <sup>d</sup>	98.31±14.17		129.81±7.64		127.54±19.15	
	21≤ <sup>e</sup>	101.00±7.00		134.43±7.79		134.71±10.75	
Present clinical-career (years)	1≤	94.68±11.23	0.08 (.971)	130.02±9.34	1.30 (.277)	118.02±17.49	1.18 (.322)
	2-5	94.62±11.01		129.37±6.87		121.37±12.86	
	6-10	95.11±10.90		127.50±9.09		121.21±12.46	
	11≤	96.83±14.30		134.17±4.22		129.50±26.93	
Turnover experience	no	93.52±9.87	-1.72 (.088)	129.17±7.93	-0.40 (.687)	119.46±12.24	-1.11 (.271)
	yes	96.79±12.52		129.73±8.38		122.57±18.44	

\*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DM: Clinical Decision Making, NWP: Nursing Work Performance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 의사결정은 연령 ( $F=3.05, p=.031$ ), 직위( $F=4.80, p=.01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으로 26-30세 보다 41세 이상에서 임상 의사결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수행은 연령( $F=9.29, p<.001$ ), 결혼상태( $t=-2.83, p=.005$ ), 근무부서( $F=3.95, p=.010$ ), 직위( $F=13.20, p<.001$ ), 임상 총 경력( $F=4.19, p=.00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으로 25세 이하, 26-30세, 31-40세 보다 41세 이상에서 간호업무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간호업무수행이 높았고, 근무부서에서 ICU, ER보다 기타 부서의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일반간호사보다 주임간호사, 수간호사가 높았으며, 임상 총 경력에 따라서는 1년 이하, 2-5년, 6-10년 보다 21년 이상에서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 업무수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인 체계성( $r=.67, p<.001$ ), 지적공정성( $r=.46, p<.001$ ), 건전한 회의성( $r=.53, p<.001$ ), 객관성( $r=.29, p<.001$ ), 지적열정 및 호기심( $r=.57, p<.001$ ), 신중성( $r=.64, p<.001$ ), 자신감( $r=.60,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 영역인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 $r=.49, p<.001$ ),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r=.37, p<.001$ ), 정보에 대한 조사( $r=.32,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3>.

### 3.4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의 간호업무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혼상태, 근무부서 및 직위를 가변수처리(dummy variable)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546 ~.948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으며, VIF지수는 1.055~1.832 범위의 값으로 기준인 10이하로 분

Table 3. Correlation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Nursing Work Performance (N=140)

	X <sub>1</sub>	X <sub>2</sub>	X <sub>3</sub>	X <sub>4</sub>	X <sub>5</sub>	X <sub>6</sub>	X <sub>7</sub>	X <sub>8</sub>	X <sub>9</sub>	X <sub>10</sub>	X <sub>11</sub>
X <sub>2</sub>	.61 (<.001)	1									
X <sub>3</sub>	.45 (<.001)	.33 (<.001)	1								
X <sub>4</sub>	.38 (<.001)	.39 (<.001)	.34 (<.001)	1							
X <sub>5</sub>	.53 (<.001)	.36 (<.001)	.67 (<.001)	.38 (<.001)	1						
X <sub>6</sub>	.60 (<.001)	.56 (<.001)	.58 (<.001)	.42 (<.001)	.71 (<.001)	1					
X <sub>7</sub>	.65 (<.001)	.51 (<.001)	.47 (<.001)	.31 (<.001)	.57 (<.001)	.66 (<.001)	1				
X <sub>8</sub>	-.04 (.647)	.04 (.654)	.15 (.088)	.14 (.097)	.17 (.048)	.01 (.881)	.06 (.480)	1			
X <sub>9</sub>	.42 (<.001)	.26 (=.077)	.46 (<.001)	.23 (=.004)	.47 (<.001)	.43 (<.001)	.48 (<.001)	.02 (.795)	1		
X <sub>10</sub>	.34 (<.001)	.46 (.048)	.23 (.006)	.40 (<.001)	.31 (<.001)	.51 (<.001)	.37 (<.001)	.21 (.014)	.16 (.064)	1	
X <sub>11</sub>	.32 (.005)	.41 (<.001)	.22 (.009)	.49 (<.001)	.15 (.077)	.43 (<.001)	.24 (.005)	.12 (.173)	.13 (.114)	.52 (<.001)	1
X <sub>12</sub>	.67 (<.001)	.46 (<.001)	.53 (<.001)	.29 (<.001)	.57 (<.001)	.64 (<.001)	.60 (<.001)	.12 (.153)	.49 (<.001)	.37 (<.001)	.32 (<.001)

X<sub>1</sub>:Systematicity, X<sub>2</sub>:Intellectual Fairness, X<sub>3</sub>:Healthy Skepticism, X<sub>4</sub>:Objectivity, X<sub>5</sub>: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X<sub>6</sub>:Prudence, X<sub>7</sub>:Self Confidence, X<sub>8</sub>:Search for Alternatives or Option, X<sub>9</sub>:Canvassing of Objectives and Values, X<sub>10</sub>:Evaluation &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X<sub>11</sub>:Search for Information and Unbiased Assimilation of New information, X<sub>12</sub>:Nursing Work Performance

포되어 있어서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28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회귀분석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적절하였으며 ( $F=31.89, p<.001$ ),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요인은 체계성( $\beta=.430, p<.001$ ), 임상 총 경력( $\beta=.237, p=.001$ ), 신중성( $\beta=.4239, p=.011$ ), 목표와 가치에 대한 검토( $\beta=.181, p=.021$ )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7.3%이었다(Table 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Nursing Work Performance (N=140)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29.452	9.202		3.201	.002
Systematicity	3.610	.78	.430	4.613	<.001
Total clinical-career	.051	.015	.237	3.384	.001
Prudence	1.482	.567	.239	2.613	.011
Canvassing of objectives&values	.732	.308	.182	2.348	.021

adj R<sup>2</sup>=.573, F=31.89(<.001), VIF=1.055~1.832,

####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간호업무수행을 확인하고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들이 간호수행을 통해 간호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간호사들의 간호업무수행 및 그와 관련된 변수들을 고찰하면 첫째, 본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3.51/5점으로 중간정도를 보였으며, 이는 경남지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3.2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 군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3.69점보다 낮게 나타났[11].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3.56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56점과 유사하게 나타났[1,12]. 이는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두 중간 이상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보였다. 하위 영역들을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체계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건전한 회의성을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객관성이 가장 높게, 신중성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 다른 결과이었으며, 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객관성이 가장 높게,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도 대조를 보였다[11,13]. 반면 간호대학생 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객관성이 가장 높게, 체계성이 가장 낮게, 또 다른 간호대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적 공정성이 가장 높게, 신중성이 가장 낮게 인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14].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변수이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을 하위영역 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절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활용이 간호대학에서 뿐 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임상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은 3.23/5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3.56점과 비슷한 결과[1],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3.0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13]. 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3.38점보다 낮게 나타났[15]. 이는 간호사들의 임상 의사결정은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하위 영역별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16],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순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였으며[13], 본 연구에서 임상 의사결정은 연령과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경험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 한 바 간호사들이 임상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힘써야하고, 적절한 진급을 통해 직위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가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간호업무에서 보다 나은 대안과 선택을 위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호사 직무교육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3.77/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57점[1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56점[18], 일

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40점[19]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임상 총 경력 등에 의해 간호업무 수행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 임상경력, 직위에 따라 간호업무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14]. 이런 결과에서 보듯이 연령과 직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음을 고려해 볼 때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간호업무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 조직에서 간호사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경력과 진급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습득한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환경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의 객관성, 지적열정 및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과 간호업무수행은 상관계수  $r$  값이 .29~.66까지의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 영역인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영역별로 상관계수를 연구한 선행 문헌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업무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며[12], 임상 의사결정과 간호업무수행간의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13,16].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질수록 간호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으며, 임상 의사결정이 증가할수록 간호업무수행 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결과를 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의 객관성과,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영역의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및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가 간호업무수행에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에 있었던바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간호업무수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원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원인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요인인 체계성으로 4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임상 총 경력을 추가하였을 경우 51.3%, 신중성을 추가하면 55.2%,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목표와 가치 검토를 추가하였을 경우 57.3%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적열정과 호기심 및 객관성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20],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 의사결정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가 간호 업무수행에 가장 큰 영향변수임을 확

인 한 연구[10],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 의사결정이 간호업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한 연구[16], 비판적사고성향이 간호업무수행능력에 가장 영향 있는 변수임을 확인 한 결과[1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과 임상 의사결정의 하위영역의 간호업무 수행 영향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부족하여 구체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을 파악하고,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업무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세 개 지역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1년 2월, 15일 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51점으로 중간정도, 임상 의사결정은 3.23점으로 중간정도, 간호업무수행은 3.7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일반적 특성 중 비판적 사고성향에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연령, 학력, 직위였으며, 임상 의사결정에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연령, 직위였으며, 간호업무수행에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및 임상 총 경력이었다.
- 3) 간호업무수행과 관련된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결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객관성, 지적열정 및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목표와 가치에 대한 검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 4)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계성( $\beta=.430, p<.001$ ), 임상 총 경력( $\beta=.237, p=.001$ ), 신중성( $\beta=.4239, p=.011$ ), 목표와 가치에 대한 검토( $\beta=.181, p=.021$ )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57.3%이었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영향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임상 총 경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 의사결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관리자는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무부서 별로 직무에 관한 교육을 다양화하여 시킬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능력에 맞는 진급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화 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일부에서 편의 추출한바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하며, 임상 의사결정의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도구 개발, 번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Y. S. Kim, J.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and Job Performance in Advanced Practic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9, No.5, pp.613-621, 2013.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5.613>
- [2] N. Y. Shin, S. Y. Yu, S. S. Kang, S. S. Lee, M. J. Park, D.Y. Lee, S. M. Nam, "Influence of Nurse Manager and Group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Nurses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6, No.2, pp.110-119, 202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20.26.2.110>
- [3] S. H. Le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Decision - Making Ability of Nurses to provid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1-55, 2015.
- [4] Facione, N. C., Facione, P. A, Sanchez, C.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 No.8, pp.345-350, 1994.
- [5] M. R. Jang,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in Emergency Nurse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p.1-63, 2019.
- [6] Jenkins, H. M, "Improving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6, pp.242-243, 1985. Hospital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9, No.6, pp.334-344, Jun.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334>
- [7] Y. S. Kim, "Impact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Decision Making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3, pp.125-136,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3.10>
- [8] K. J. Kang, E. M. Kim, S. A. Ryu,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for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1, pp.284-293, 201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284>
- [9] A. N. Park, K. H. Chung, W. G. Gyeong,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1, pp.1-10, 2016.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1.1>
- [10] N. J. Je, "The Influence of Moral Behavior, Moral Anguish,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on Clinical Decision-making Ability in Nur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2, pp.275-288, 20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2.275>
- [11] S. H. Yoon, T. H. Lee, S. J. Maeng, J. E. Kwon, "The Influence of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Patient Safety Competency in Armed Forces Hospital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9, No.2, pp.123-132, 2020. DOI: <http://dx.doi.org/10.5807/kiohn.2020.29.2.123>
- [12] J. H. Kim, K. J. Kwon, S. H.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295-307, 2017.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4.295>
- [13] R. Y. Jang,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on Clinical Nurses'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pp.1-56, 2016.
- [14] D. H. S. Kang, "The Influence of nursing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iency on Clinic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4, pp.191-203, 2020. DOI: <http://doi.org/10.12811/kshsm.2020.14.4.191>
- [15] Y. L. Son, E. H. Kim, "Impact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Role Conflict Clinical Decision-Making Ability of Nurses o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s War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al-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7, pp.463-473, 2018. DOI: <http://doi.org/10.5762/KAIS.2018.19.7.463>
- [16] C. W. Le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amo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 Abilities, Professional Autonomy and Nursing Performanc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unsan National University. pp.1-63, 2018.
- [17] J. H. Park, S. G. Chung,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36-244,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10.236>
- [18] K. H. Jang, E. G. Kim, "Effect of the Emotional Leadership of Nursing Unit Managers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Mediating Effects of Job Eng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pp.419-432, 2020.  
DOI: <http://doi.org/10.37727/ikdas.2020.22.1.419>
- [19] S. Y. Kim, Y. E. Kwon, "Effect of Happiness and Empowerment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36-244,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12>
- [20] J. J. Yang,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1, pp.443-449, 2019.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443>

---

김 요 나(Yo-Na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의대 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및 행정, 간호윤리